



## 채만식 연구

---

저자            두창구  
(Authors)

출처            [어문연구 9\(1\)](#), 1981.5, 124-145 (22 pages)  
(Source)

발행처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054990>

APA Style     두창구 (1981). 채만식 연구. 어문연구, 9(1), 124-145.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133.25  
                  2016/06/13 16:5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 蔡萬植 研究

—作品世界를 中心으로—

杜 銀 球

〈本會會員・中大附屬女高 教師〉

## 序 論

蔡萬植은, 近代의 覺醒에서 創刊된 「創造」 이후 60 여년에 이르는 동안 諷刺文學의 獨步의 作家로서 그의 文學的 功績이 높이 評價되고 있다. 그리고 同伴者의 作家로서, 排日的인 社會主義의 作家로서, 리얼리즘의 作家로서<sup>1)</sup>도 그의 文學의 特性을 評價하고 있으나, 이러한 要素들이 作家의 어떠한 思想的 바탕에서 形成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意味性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綜合的 研究는 未開拓狀態에 있다.

이런 面에서 蔡萬植은 널리 알려져 있는 作家이면서도 깊이 알려져 있지 않은 作家이다. 이는 그에 대한 研究가 皮相的 觀念에 그쳤을 뿐, 作品 속에 內在된 作家精神과 이 作家精神이 바탕이 된 一連의 作品의 綜合的 把握을 輕視한 데서 온 結果라 하겠다.

筆者는 이미 蔡萬植研究의 基礎的 作業으로서 主要作品에 대한 特色을 整理해 본바 있거니와<sup>2)</sup> 本稿에서는 그의 作品을 具體적이고 立體的으로 把握함으로써 無關心 속에 放置되어 있던, 作品上에 나타난 蔡萬植의 眞面目을 把握하고자 한다.

1) 任軒永, 「韓國近代小說의 探究」 汎友社, 1974, p. 179.

2) 拙稿, 「蔡萬植作品論」 文耕 16, 1964, pp. 168~183.

## 本 論

白菱(또는 采翁) 蔡萬植의生涯는 비교적 單調로왔으나 文學에 대한 執念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2년 全北 沃溝郡 臨陂面 邑內里에서 富農인 父 蔡奎燮과 趙氏 사이에서 5男으로 태어난 그는 1918년(17세) 臨陂普通學校를 卒業, 同年 3월 上京하여 中央高等普通學校에 進學했다. 同校在學 중 이웃 面인 威羅面 出身 尹 殷善興과 結婚했으며, 1922년(21세) 同校를 卒業한 뒤 渡日하여 早稻田大學 豫科(英文科)에 入學했으나 翌年 關東大地震으로 學業을 中斷하고 歸國했다. 1년간의 짧은 留學生活과 高等普通學校에서 習得된 日語, 英語가 그의 作品 중에 자주 單語 또는 文章으로 活用된 바탕이 되었다.<sup>3)</sup>

蔡萬植의 社會的 活動이라면 新聞과 雜誌의 記者生活이 全部다. 1923년(22세) 東亞日報 記者(學藝部)로 出發, 1925년에 朝鮮日報로 옮겼고 1932년(31세) 開關社에 入社, 1935년(34세) 同社를 떠날 때까지 총 13년간 戯曲 〈가죽머선〉 〈화물자동차〉, 長篇 〈人形の 집을 나와서〉, 中篇 〈과도기〉, 短篇 〈레디메이드人生〉 등 10여편의 作品을 내놓았다.

世俗에 融和되지 못하며 貴族의 性格을 지닌 그는<sup>4)</sup> 1935년부터 創作生活에만 專念하여 長 短篇을 量産했다. 그 해에 金鑛業을 하던 仲兄 俊植이 살던 開城으로 갔다가 1937년 서울 廣壯里로 거처를 옮겼으며 日帝의 탄압을 피해 1945년 鄉里인 全北 臨陂로 내려갔다가 翌年 裡里에 옮겨살던 俊植의 집으로 移居했는데 이 기간 동안 줄곧 創作에만 몰두한 탓으로 1949년 果로 臥病, 1950년 6월 11일 이곳에서 49세로 永眠했다.

그는 1935년 이후 作故할 때까지 15년간 〈濁流〉 〈太平天下〉 같은 代表作을 비롯하여 旺盛한 創作活動을 展開했다. 주로 仲兄 俊植의 經濟的 도움을 받으면서, 文壇的 交流는 아예 外面한 채 創作의 길로만 精進한 것이다.

### 1. 作品目錄

일반적으로 蔡萬植은 1925년 〈새길로〉를 「朝鮮文壇」에 發表하여 作家로서 出發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蔡萬植의 推薦作品은 1924년 「朝鮮文壇」 12月號에 發表된 〈새길로〉이

3) 當時 高等普通學校에선 日語가 必須, 英語가 選擇科目으로 重視되었을. 日本語外來語 및 文은 〈새길로〉부터 나오며 〈濁流〉 〈太平天下〉 등에 專히 日語 西歐系外來語가 빈번히 나온다.

4) 「韓國文學全集」9, 蔡萬植 篇, 民衆文館, 1958.12, 年譜 p.5.

다.<sup>5)</sup>

그는 1925 년 「朝鮮文壇」을 통해 登壇, 1949 년까지 26 년간 80 여편의 作品을 남겼는데 이를 區分해 보면 다음과 같다.

短篇→〈세 길로〉〈生命의 遊戲〉〈黃金怨〉〈사라지는 그림자〉〈人形의 집을 나온 연유〉〈富村〉〈레디메이드 人生〉〈冷凍魚〉〈敗北者의 무덤〉〈심봉사〉〈쭈쭈새〉〈小妾〉〈예수나 믿었더라면〉〈祭嚮날〉〈童話〉〈이런 男妹〉〈집〉〈龍洞宅〉〈정자나무 있는 插話〉〈痴叔〉〈橫索〉〈病이 났거든〉<sup>8)</sup> 〈이런 처지〉〈不傳막지〉〈生命〉〈貧一第一章 第一課〉〈홀리간 故郷〉〈암소를 팔아서〉〈懷〉〈四號一段〉〈近日〉〈젊은 날의 한 句節〉〈邂逅〉〈鍾路의 住民〉〈고약한 사돈〉〈插話〉〈妻子〉<sup>7)</sup> 〈巡公있는 日曜日〉〈興甫氏〉〈善良하고 싶던 날〉〈車中에서〉〈上京折半記〉〈덕원이 先生〉〈강선달〉〈歷程〉〈논 이야기〉〈落照〉〈도야지〉〈아시아의 運命〉〈歷史 第一話〉〈늑은 極東選手〉〈實의 功〉〈대낮의 주막집〉<sup>9)</sup> 〈성찬〉<sup>9)</sup> 〈이상한 선생님〉<sup>10)</sup> 〈왕치와 소새와 개미와〉<sup>11)</sup>... (56 편)

中篇→〈과도기〉〈明日〉〈冷凍魚〉〈아름다운 새벽〉〈배비장〉〈民族의 罪人〉〈許生傳〉... (7 편)

長篇→〈人形의 집을 나와서〉〈女子의 一生〉<sup>12)</sup> 〈濁流〉〈太平天下〉<sup>13)</sup> 〈金の 情熱〉〈女人戰記〉〈玉娘祠〉〈少年은 자란다〉... (8 편)

戯曲→〈가죽버선〉〈貨物自動車〉〈蠶螂의 傳說〉〈심봉사〉〈興夫傳〉〈대낮의 주막집〉<sup>14)</sup>... (6 편)

시나리오(오리지날)→〈無藏三冬〉... (1 편)

隨筆→〈어머니의 슬픈 祈願〉〈小說을 잘 읊시다〉〈밤 손님〉〈文學을 나처럼 하여서야〉... (4 편)

☆ 未完成 長篇→〈소〉

이상의 作品 중 短篇 〈심봉사〉는 1936 년 「文章」에 發表했으나 총독부의 檢閱에 걸려 全文削除당했는데 1944 년 戯曲으로 再創作하였고, 1944 년 戯曲 〈대낮의 주막집〉은 「文章」에 連載 중 中斷된 것을 公트로 改作했다.

5) 「朝鮮文壇」 1924 년 12月號에 〈세 길로〉 아닌 〈세길로〉로 나옴. 作品末尾에 1924.9.7, 脫稿日 字도 나옴.

6) 〈童話〉의 續篇.

7) 〈집〉의 續篇.

8), 9) 공트.

10), 11) 童話.

12) 日帝의 傀儡로 〈어머니〉를 改題.

13) 1938 년 「朝光」에 發表할 때는 〈天上太平春〉이었으나 1940 년 〈太平天下〉로 改題.

14) 〈심봉사〉, 〈興夫傳〉, 〈대낮의 주막집〉은 小說을 改作.

그의 作品 中엔 總督부의 檢閲에 걸려 이처럼 全文割除 및 發表不斷된 것도 여러 편 있을 문다<sup>15)</sup> 다행히 發表는 되었으나 部分割除당한 作品도 상당수 있어 旺盛한 創作意慾이 적잖이 挫折당했음을 볼 수 있다.

## 2. <세 길로>의 意味性

<세 길로>는 불과 菊版 7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作品이지만 蔡萬植文學의 方向을 보여 주는 作品이다.

蔡萬植作品의 舞臺는 대부분 故鄕인 臨陂를 중심으로 한 湖南一圓(群山, 裡里)과 서울이다(蔡萬植의 첫작품 <세 길로>가 裡里에서 서울로 出發하는 과정이고 未完成 作品 <소>를 제외한 마지막 작품 <少年은 자란다>가 反對로 서울서 裡里로 내려오는 과정은 각각의 末章 裡里로와 결부되어 또한 文學적 연관성을 보인다). <濁流>에서 초룡이 担里에서 기차를 갈아 탈 때 막지호와 만나게 되고, 六三의 이를 때까지 歷程이 자세히 紹介되어 있고 <少年은 자란다>에선 反對로 大 邱에서 父를 잃은 영호와 英자가 裡里에 도착하는 장면이 생생히 그려져 있지만, <세 길로>에서도 當時 唯一한 交通網인 기차를 타고 上京하는 이서부 터 시작된다. 이 車 中에서 한 女學生을 중심으로 나와 그(전문학생인 똥칸)와의 心理的 갈등이 如實히 描寫되어 있다. 이러한 心理描寫는 蔡萬植作品의 도처에서 使用되었다.

<메디에이드人生> <濁流> <太平天下> <明日> <少年은 자란다> <痴叔> 등 그의 作品 中 成功한 作品일수록 登場人物의 心理描寫가 철저한데 이러한 心理描寫의 出發點은 바로 <세 길로>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蔡萬植作品에 登場되는 人物——특히 女性의 경우——外貌描寫는 거의 公式의 일 만큼 철저하다.<sup>16)</sup>

그 여학생은 얼굴이 넓고 두툼하고 몸과 수족도 큼직하고 카철 바깥을 내어다보며 무심코 「어대야?」하는 그 말소리까지가 살이 진듯이 두두룩 해서 한번 보기에 어쩔지 육감적 기분이 그의 주위에 싸여 떠도는 듯하였다.

그는 적삼도 회고 치마도 회고 속옷도 회고 무릎까지 나온 양말도 회고 분바튼 얼굴도 회고 다만 뾰족한 뺨뺨은 구두와 밟혀 있게 늘렁늘렁 따내린 탐스러운 머리카락만이 새감했었다. 말하자면 시골사람 말쑥으로 「부차집 만머느리감」이었었다.<sup>16)</sup>

이 女學生 나와 그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알밀고 약게 생긴 얼

15) 이러한 割除는 登壇作品 <세 길로>에서부터 시작된다. 「朝鮮文壇」第3號 1924. 12 月號, p. 14 下段.

16) 「朝鮮文壇」1924. 12. p. 13.

굴 표정의 소유자인 나이 스물 네댓 되어보이는' 그 사내는 '그 여학생에게로 향하는 안정치 못한 교활한 시선'에 대해 질투를 느낀다. 女學生의 환심을 얻기에 血眼이 된 그는 大田에서 서울行 列車을 갈아 탈 때 '아까보를 불러주기와 짐날라 주기에 매우 분주'할 뿐더러 '그 여학생의 급행권도 사주고 경부선에 올라선 자리를 골라 잡아주는' 과잉친절을 질시하는 나의 심리적 갈등이 불꽃처럼 강렬히 灼熱한다. 이에 대하여

나는 무로하여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하여 속담으로 「왜 바라볼꼬?」하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라고 해석하였으나 나는 그 해석에 내 스스로가 불만족이었고 도리어 그에게 쳐다보인 것이 무조건으로 기뻐다. (중략) 나는 좀 불안하였으나 승리자의 심리같은 기쁨을 느꼈다.<sup>17)</sup>

나는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체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금 내 옆얼굴을 바라보려니 생각하니 마음에 썩 기뻐다. (傍點친 '그'는 女學生을 뜻함).<sup>18)</sup>

나는 그의 하는 것을 수없이 암탕을 대할 때 그것처럼 보았다.<sup>19)</sup>

에서 보듯 女學生에 대한 그의 好意가 보일수록 나의 질투는 增大되는 心理描寫가 鮮明하다. 또한 여기서 能動的인 그와 受動的인 나의 對立도 對照的이다. 〈濁流〉〈明白〉〈레디메이드人生〉〈少年은 자란다〉외에도 蔡萬植의 作品에 登場하는 主人公들은 知性的이나 開拓的 意志가 결집된 人間象을 보여준다.

蔡萬植은 人生을 宿命的으로 把握한다. 〈濁流〉에서도 그렇지만 〈세 길로〉의 結末은 바로 그런 作家의 人生觀이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어슬어슬 저물어가는 저녁해에 남대문 정거장의 혼잡한 개찰구를 빠져 나와 조용한 구석이 가 서서 그 여학생과 사내의 가는 길을 보았다.

그 여학생은 그 사내도담 먼저 나와 그 마나님과 함께 인력거를 타고 남대문 안으로 향하여 들어갔다.

급히 나오던 그 사내는 인력거 뒤만 한참이나 바라보고 섰다가 그 중학생과 함께 중국사람 마차를 타고 서대문 전차길 난 곳으로 갔다.

나는 혼자 전차를 타고 용산으로 나아갔다.<sup>20)</sup>

17) 上揭書, p. 11.

18) 上揭書, p. 12.

19) 上揭書, p. 13.

20) 上揭書, p. 16.

女學生이 南大門쪽으로, 그 사내가 西大門쪽으로, 나는 龍山쪽으로 各者의 길로 分散되는 三方向이 바로 <세 길로>다. 기차 안에서 격렬하게 타올랐던 心理의 갈등은, 自己의 目的地(人生의 目標) 앞에선 하나의 미약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宿命 앞에서 人間의 意圖的 作爲性은 無意味한 徒勞에 지나지 않음은, 몸부림치는 초봉의 意志가 처절히 挫折당하는 <濁流>에서도 立證된다.

그 이튿날 나는 거리에서 그 사내를 또 만났다. 나는 입안에 든 미소로 그에게 全暗示(全暗示)를 주었다.

그 역시 빙그레니 웃고 지나갔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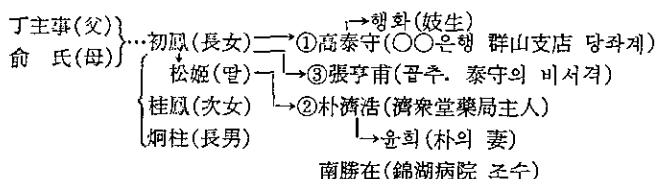
蔡萬植은 人生은 宿命的 存在에 지나지 못한다는 점을 <세 길로>의 末尾에서 다시 한번 蛇足を 달아 強調했다.

### 3. 構成과 表現의 技法

蔡萬植은 短篇보다 長篇에서 더 成功했다. 그것은 于先 長篇의 構成에 緊密性和 壓縮性を善用했기 때문이다.

緊密性和 壓縮性이 가장 강한 作品은 <濁流>와 <太平天下>이다. 이 作品은 作品構圖, 人物配置, 心理의 變化, 伏線, 事件展開의 因果性이 濃度질게 連結되어 있으며 여기에 諷刺과 諧謔이 알맞게 融和되어 主題意識이 鮮明히 드러난다.

作品에 있어 主人公을 비롯한 登場人物의 設定은 主題와 直結된다. 우선 <濁流>의 人物配置를 보기로 한다.



(\* 初鳳은 ① 高泰守와 結婚했다가 ② 朴濟浩의 妻가 되었고 ③ 張亨甫와 살게 됨)

長篇치고는 登場人物이 비교적 少數일뿐더러 主要人物은 初鳳, 丁主事, 高泰守, 張亨甫, 朴濟浩, 南勝在, 俞氏, 桂鳳 정도인데 이들은 個性的이고 精選된 人間들이다. 그들의 個性을 보면

21) 上揭書, p. 16.

丁主事→無能하나 虛態이 있고 米豆에 미칠. 자신에게 利가 있으면 말의 희생도 만  
죽을 느끼는 利己型

俞氏→平凡한 主婦, 삶바느질로 生活力 도움. 남편에게 가끔 부정을 하나 근면 온  
순함.

初鳳→主人公, 無能한 아버지 때문에 家族을 위해 희생함. 온갖 운명적 시련을 겪  
으면서도 한가닥 순정은 끝내 지킴. 생각이 깊으며 내성적.

桂鳳→명랑 발랄함. 구김살 없으며 개방적.

高泰守→관능적 쾌락을 추구함.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  
破廉恥漢. 도덕 윤리상으로 悖倫兒.

張亨甫→음흉하고 간교함. 흉물스럽고 利己의이며 교활한 근성을 지님.

朴濟浩→好人이나 경박함. 편리하게 살아가려는 인간. 適當主義.

南勝在→현신적이며 순정적인 청년. 利他的 휴머니스트.

로 요약된다. 初鳳을 둘러싼 이런 人間 사이에서 初鳳의 悲劇的 宿命은 不可  
抗力的이다.

蔡萬植作品에 登場되는 人物들은 이처럼 個性이 뚜렷한 人物들이 精選되  
어 있으며, 이러한 個性은 外貌에서부터 豫示된다.

초봉이의 것처럼 끝이 힘없이 수그러지는 연산한 말소리와 그리고, 귀가 너무 작  
은 것을, 그의 부친 정주사는 그것이 단명할 상이라고, 늘 혀를 차곤 한다.

말소리가 그럴 뿐 아니라, 얼굴 생김새도 복성스러운 구석이 없고 청초하기만 한  
것이 어디라 없이 불안스럽다. 티끌없이 해맑은 바탕에 오희 날이 선 코가 우선 눈  
에 뜨인다. 가름한 하장이 아래로 좁아 내려가다가 급하다 할 만치 빨랐다.

눈은 둥근 눈이지만 눈초리가 찌지다가 남은 것이 있어 길어 보이고 거기에 무엇  
인지 비밀이 잠긴 것 같다.

윤곽과 바탕이 이러니 자연 선도 가늘어서 들국화답게 청초하다. 그래서 보는 사  
람으로 하여금 웬일인지 위태위태하여 부지중 안타까운 마음이 나게 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자면 청승스런 얼굴이나 그런 흠을 많이 가려주는 것이 그의 입과  
턱이다.

조그맣게 그려진 입이, 오긔하니 둥근주걱턱과 아울러 그저 볼 때도 볼 매지만  
무심코 해죽이 웃을 적이면 아담스런 교태가 아낌없이 드러난다.<sup>22)</sup>

初鳳의 外貌는 宿命的 悲劇을 이미 豫示하고 있듯 丁主事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22) 〈濁流〉「新韓國文學全集」4, (蔡萬植選集), 語文閣, p.18.



땅대뼈가 툭 볼거지고, 훌쩍 빠진 볼은 배가 불러도 시장만 해 보인다. 기름기 없는 얼굴에는 오월의 맑은 날에도 그늘이 진다. 분명찮은 눈은 노상 두고 깜작거리는 것은 관한 버릇이요, 그것이 마침잡으로 팔이 더 궁상스럽다. 못생긴 노랑 수염이 몇날 안되게 시늉만 자랐다. 그거나마 정주사는 잊지 않고 자주 쓰다듬는다.<sup>23)</sup>

초라하기 짝이 없고 無氣力하며 利己의 打算性을 지닌 丁主事는 米豆에 대한 虛慾을 버리지 못하며 말의 희생에도 鈍感한 封建的 隋性的 所有者이다.

후리후리한 몸에 차악 맞는 양복을 입고 가름한 얼굴이 해맑고 코가 준수하고 웃입술을 간드러지게 벌려 방긋 웃고, 그래서 무척 앵글 상 있어 생기기는 생겼어도 눈이 오듯한 매눈에 눈자가 몹시 표독스러워 보이는.....<sup>24)</sup>

好色漢의 高泰守의 外貌는 멀끔해도 惡運이 豫示되어 있으며,

키가 훨씬 더 크고 몸도 크고 어깨통이 떠억 벌어졌다. 얼굴은 두름하니 넓적하고 이마도 펍 넓다. 그래서 실직하고 무개는 있어 보여도 매초름한 고운 태는 찾으려도 없다. 얼굴은 눈통이며 눈이며, 코, 입, 이런 것들이 제자리는 제자리라도 너무 울퉁불퉁하게 솟을 늪은 솟고 박힐 늪은 박히고 해서 조각적이기는 해도 고태수라는 사람처럼 그린듯 곱지는 못하다. 다만 그의 눈만은 고태수의 눈과는 문제도 안되게 좋다. 어느 산중에 있는 깊은 호수같이 맑고도 고요하다. 무엇인지 모르겠어도, 이 세상 좋은 것이라고는 다아 그 눈에 가 들었는 성실은 그런 눈이다. 그리고 이 눈으로 해서 승재의 그 아무렇게나 생긴 얼굴이 승을 가리고 남는다.<sup>25)</sup>

南勝在의 투박한 印象과 호수같이 맑고 고요한 눈에서 가식없이 순수한 人間의 변모가 드러난다.

이와 같이 人物의 外貌에서 오는 個性의 豫示는 다른 作品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그러나 客觀的 人物描寫가 되지 못하고 主觀的 評價가 混合된 前近代의 殘在가 남아 있긴 하지만 作家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하는 點만은 明確하다.

또 蔡萬植은 作中人物의 心理描寫에 徹底했다. 豫想外의 事件反轉에도 緻密한 心理的 因果에 따른 必然性이 철저히 計算되어 있다. 뛰어난 心理描寫는 예상 밖의 事件展開와 調和를 이루어 讀者로 하여금 긴장감을 提高시킨다. 事件展開가 劇的이면서도 反轉의 當爲性이 매우 자연스럽게 認識되는 所

23) 上揭書, p. 8.

24) 上揭書, p. 25.

25) 上揭書, p. 25.

以는 心理描寫를 善用함에서 起因된다.

특히 〈濁流〉〈太平天下〉의 構成이 치밀하고 事件의 連繫性이 完全히 調和를 이루어 긴박감을 높인다.

그리고 蔡萬植作品에는 現場感 내지 寫實性이 잘 나타나 있다. 丁主事의 活動舞臺인 群山 開福洞 一帶의 地形이 아주 소상하고,<sup>26)</sup> 米豆用語와 去來方法, 去來風景이<sup>27)</sup> 매우 具體的이며, 또 結婚式을 앞두고 高泰守가 花柳病을 治療하기 위해 勝在를 찾아갔을 때 勝在의 性病에 대한 病理學의 說明<sup>28)</sup>은 매우 상세하다. 이처럼 實感있는 表現에서 作品에 대한 作家의 진지한 誠意의 一端을 볼 수 있다.

#### 4. 作品上의 人生觀

人間의 探究, 人間의 認識, 새로운 人間型의 發見과 創造가 近代小說의 重要な 特質이라 할 때, 蔡萬植이 創造한 人物의 把握은 그의 思想을 理解하는 捷徑이 된다.

蔡萬植文學에 있어서 諷刺性은 喜劇化된 人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들은 否定的 人間像으로 歸一된다. 〈濁流〉의 丁主事는 父母 덕에 ‘신구학문’을 마치고 郡廳員이 되긴 했으나 無能으로 도태당한 뒤 米豆에 손을 대 父母의 遺産을 날리고 애송이 ‘하바꾼’한테 떡살을 잡히는 봉변까지 당하자

죽지만 안할 테라면 시방 그대로 두루마기를 둘러쓰고 똥덩 물로 뛰어들어 자살이라도 해보고 싶은

비감에 빠진다. 그래서

입만 가졌지 손발이 없는 사람…… 이것이 정주사다. 진도라고 하는 섬에서 나는 개(珍島犬)하며, 금강산의 만물상이며 삼청동 숲속에서 울고 노는 새들이며, 이런 산수고 생물이고 간에 천연으로 묘하게 생긴 것이면 〈천연기념물〉이라고 한다. 그럴 바이면 입만 가졌지, 수족이 없는 사람, 정주사도 기념물 속에 들긴 드는데,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니까 천연 기념물은 못되고 인간 기념물이겠다.

라고 喜劇化시켰다.

26) 上揭書, p. 13~14.

27) 上揭書, pp. 47~48.

28) 上揭書, pp. 100~104.

「그래서야 내가 돈에 욕기가 나서 혼인을 한 것이 되지 않느냐?」  
 고 준절히 이르다가 그래도 저희들이며, 옆엿사람들이 나서서 무얼 그러느냐고 권  
 면을 할 테니까, 그때는 못이기는 체 하고 그 돈을 받아…… 한 밀천 잡아서 장사  
 를 해…… 미상불 그렇게 어떻게 잘만하면 집안 생필도 팔 수도 있기는 있으려다.  
 정주사의 이 공상은 이렇듯 그놈이 바로 희망으로 변하고 희망은, 희망이 간절한  
 만큼 다시 확신으로 굳어 버려던 것이다.<sup>29)</sup>

無能力과 야비와 엉큼스러운 丁主事의 利己의 파렴치성은, 張亨甫의 농간  
 에 高泰守가 타살당하자.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좋고 ‘날아 가버린 장사밀천’ 그것이 속절없어 태수  
 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진 듯 아득했다.  
 「허! 흉악한 일로군!」  
 정주사가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한다. 그것은 사위가 죽은데 대한,  
 따라서 딸의 신세를 생각하는, 장인이요, 아버지의 상심이 노상 아닌 것은 아니나,  
 <날아가 버린 장사밀천>이 안타까와  
 「허! 허망한 일로군!」  
 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었다.<sup>30)</sup>

라는 심정에서 利己性의 絶頂을 이룬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丁主事를 위  
 한 初鳳의 犠牲에도 丁主事에게 非情한 利己性만이 번뜩일 뿐이다. 그리고  
 곱추 張亨甫의 음흉함이며 싱거운 朴濟浩의 경박함이 또한 戲畵的이다.

<太平天下>의 尹直員영감도 喜劇的 人物이다. 打算的이고 利己的이며 음  
 흉하고 주착없는 노인 주변에 다섯 과부의 作態나 아들 손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戲畵化되어 있다. 이러한 喜劇的 人物들을 통해 蔡萬植은 人間性を 否  
 定的으로 告發한다.

反面에 肯定의 人間에는 戲畵性이 배제된다. 初鳳과 南勝在, <少年은 자란  
 다>의 영호, <明日>의 범수, <玉娘祠> 장선용 등은 진지한 휴머니스트다. 結  
 局 蔡萬植作品속에 人物의 戲畵化는 否定의 人物을 告發하려는 데 있었던 것  
 이다.

다음으로 蔡萬植의 女性觀은 消極的, 純情的, 犠牲的, 宿命的 存在로 要  
 約된다. 南勝在를 戀慕하면서도 無能한 父母를 위해 高泰守와 結婚하는 初  
 鳳은 父의 친구 朴濟浩의 妾이 되었다가 곱추 張亨甫의 妻로 轉落하는 기구

29) 上揭書, p. 33.

30) 上揭書, p. 149.

한 運命의 길을 겪으면서도 동생 桂鳳과 無能한 父母에게 經濟的 도움을 위해 철저히 犧牲한다. 丁主事의 非情한 利己心과 지극히 대조적인,<sup>31)</sup> 父母를 위한 犧牲, 자식 松姬에 대한 盲目的인 母性愛, 桂鳳에 대한 同氣愛, 南勝在에 대한 순수한 愛情은 傳統的인 한국적 女性像이며 利己의이고 邪惡한 人間들 틈에서 오히려 光彩를 보인다. 아무리 연약하고 善良한 人間이라도 環境에 따라 거칠어질 수 있는 可能性——예컨대 流産을 시키려 극약을 복용하는 일이나, 張亨甫를 殺害하는——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영혼 깊숙히 內在된 순수한 本性은 결코 變質되지 않는다.

초봉이는 불시로 눈물을 거두고 얼굴을 들어 승재께로 돌린다. 승재도 마침 울음 소리 그칠 때 주의가 가서 고개를 돌다가 초봉이와 눈이 마주친다.

초봉이는 무엇인지 간절함이 아리어 있는 눈동자로 무엇인지를 승재의 얼굴에서 찾으려는 듯 한참이나 보고 있다가 이윽고 복멘 소리로

「그렇게 할까요? 하라구 하시면 하겠어요! 징역이라두 살구 오겠어요!」  
하면서 조르듯 묻는다. 의외요, 그러나 침착한 태도였었다.<sup>31)</sup>

張亨甫를 죽이고 飲毒自殺하려던 初鳳이 突然한 南勝在의 出現에 새로운 希望으로 부른다. 이는 勝在에 대한 깊은 純情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蔡萬植은 肉體와 精神이 모두 墮落되지 않는 한 身肉이 이미 타락되었어도 精神이 純粹하다면 救濟될 수 있음을 初鳳을 통해 力說하고 있다.

職業的 賣淫女가 정조를 팔아 生을 유지하는 것을 蔡萬植은 否定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肉體보다도 精神의 타락은 容納하지 않는다.

P는 또 일어나려는 것을 계집이 껴안고 놓지 아니한다.

「자고 가, 내가 반했어」

「아서라」

「정말」

「놓아」

「아니야, 안 놓아, 자고 가요 응…… 자고 나 돈 좀 주어」

「돈? 내가 돈이 있어 보이니?」

「돈 소리가 짹짹 나는데?」

미상불 P의 포켓속에는 아까부터 잔돈 소리가 가끔 짹짹거렸다.

「자고 나 돈 조금 주고 가, 응?」

31) 上揭書, pp. 285~286.

「얼마나？」

「암만도 좋아…… 오십전도, 아니 이십전도……」

계집애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P는 불에 데인 것같이 벌떡 일어섰다. 일어서면 서 그는 포켓속에 손을 넣어 있는 대로 돈을 움켜쥐어 방바닥에 확 내던졌다. 일원 짜리 지전 두장과 백통전이 방바닥에 요란스럽게 흐트러진다.

「아파 돈！」

내던지고는 P는 뛰어 나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sup>32)</sup>

방새와 전깃불 값이 두달이나 밀리고 시골에 맡긴 자식까지 들이닥칠 각박한 형편인데 외투를 잡혀 마련한 四圓 중 쓰고 남은 돈 전체를 창녀에게 팽개치는 결벽성은 바로 精神的 순수성을 지닌 初鳳을 相對적으로 強調하는 셈이 된다.

蔡萬植의 作品에는 官能的 女性이나 場面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濁流>에서 탐식부리 한참봉의 妻 金氏가 下宿하는 高泰守와 姦通하는 장면이 淫亂의 극치를 보인다.

김씨는 물기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태수가 이뻐도 물고 미워도 묻다. 물어도 그냥 질근질근 무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아드득 물어 뜯는다. 이렇게 물어 뜯는 맛이란, 잇열 속에 근질근질, 몸이 금시로 노그라지는 것 같아 세상에도 꼭 들쭉 가는 게 좋지 셋째도 가지 않는다.

그 덕에 태수는 양련 팔로 어깨로 젖가슴으로 사뭇 이빨자국 투성이다.<sup>33)</sup>

「아이고 요것아」

김씨는 손가락으로 태수의 볼매기를 잡아 쌀쌀 흔들다가 그대로 끌어다가는 ××××× 기왕이니 한바탕 각 물어뜯고 싶던 것을 차마 아직 참던 것이다.

「……장갈 둘러니 재롱 놀았구나！」

「해해」

「얼굴이 많이 상했다가? 짧은 것들 장갈 디러주는 이래서 걱정이야! 그렇지만 너무 그리지 마라. 몸에 해로우니라」

「보약이나 좀 지어 보내주덜랑 앓구서」

「오냐. 냄새 내가 지어 보내주마.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한다. 그 애가 온 그럴 게두 이쁘더냐？」

「응」

「하하하! 고것이야! …… 그렇지만 너 오늘 저녁은 내것이다? 약속 알겠지？」

32) 上掲書, <레디메이드 人生>, pp. 411~412.

33) 上掲書, <濁流>, pp. 60~61.

한달에 두번은 내한테 오기로 한 거」<sup>34)</sup>

무는 金氏의 Sadisme 과 음탕성은, 張亨甫의 농간으로 高泰守와 金氏가 한참봉에게 간통현장이 발견되어 打殺당하는 結果를 招來한다. 蔡萬植은 不貞한 女人에 대한 준엄한 응징은 初鳳의 純情을 提高시키기 위함이다.

〈太平天下〉에선 며느리 高氏, 딸 서울아씨, 孫婦 朴氏, 趙氏, 針母 全州宅 등 생과부 통과부 5名의 寡婦團 사이에 發生하는 喜劇的 場面이 展開된다. 이 외에도 尹直員 영감의 愛人 春心和 창식의 妾 玉花까지 곁들여 이들 女性들이 지닌 本性格 갈등이 뒤얹혀 諸謔美를 이룬다.

蔡萬植은 登場人物의 버릇을 통해 性格創造를 補充한다. 〈濁流〉에서 朴濟浩의 ‘제기랄 것’ 〈太平天下〉에서 尹直員영감의 ‘짜절을 낸’ ‘잡아 뽑을 놈’, 〈少年은 자란다〉에서 吳先生의 ‘젠장마질’ 등은 喜劇的 個性을 強化시킨다.

## 5. 諷刺性

白鐵教授는 그의 「國文學全史」에서 1930 년대의 文學을 論하면서 純事實의 世界를 그린 世態小說 즉 市井文學이 觀察世界的 文學이요, 이러한 傾向의 代表的 作品으로 朴泰遠의 〈川邊風景〉을 들고 있다. 그리고 蔡萬植도 이들과 類似性은 있으나 이와는 區別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本來 이 作家는 同伴作家로 自處하니만큼 傾向의 作家다. 그가 知識人을 主題하여 現實批判을 쓴 것은 既述한 바 이어나와, 〈濁流〉에서도 作家는 다만 現代의 一風俗世態를 눈앞에 보이는 대로 追描하는데 붓을 맡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現實을 分析하고 批判하려는데 主題를 作定하고 着手한 作品이다.<sup>35)</sup>

單純한 世態를 純事實에 입각하여 쓴 朴泰遠類와는 달리 現實에 대한 分析和 批判意識이 蔡萬植에게 強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蔡萬植은 現實의 分析和 批判을 正面的이 아니라 迂廻의으로 곧 諷刺的으로 處理했다. 그의 作品 도처에 諷刺가 나오고<sup>36)</sup> 또 이것이 成功的으로 善用되었으므로 諷刺文學家로서 評價되고 있다.

〈太平天下〉는 諷刺의 絕頂을 이룬 作品이다. 尹直員 영감을 위시하여 登場人物 거의 전체가 그렇지만 상노 상남과 비서적인 大福, 환갑이 다 되어 酒女와 상관하여 낳은 천덕구렁기 태식은 外貌부터 喜劇的이다.

34) 上掲書, pp. 134~135.

35)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新丘文化社, 1958, p. 425.

36) 拙稿, 「蔡萬植作品論」, 「文耕」16, 1964, pp. 138~183.

이놈이 썩 모하게 생겼습니다. 우선 부록송아지 대가리같이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노랗기까지 한 게 장관이요, 그런 대가리가 어찌면 그렇게도 큰지 남의것 같습니다. 눈은 사팔이어서 얼굴을 모로 돌려야 똑바로 보이고 코는 비가 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나이는 스무살인데 그것은 이애한테만 세월이 특별히 빨리 갔는지, 열살은 에누리없이 모자랍니다.<sup>37)</sup>

운동화에 국방색 당부바지에, 검정 저고리에 오그라붙은 카라에 배앓배 꼬인 검정 벚타이에 사년 된 맥고자에, 벌에 탄 얼굴에, 툭 불거진 광대뼈에, 근천스럽게 말라붙은 안면근육에, 깡마른 눈경기에…… 이 형색과 모습은 백만장자의 지배인 겸 비서 겸 이러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매우 섭섭해 보입니다.<sup>38)</sup>

열다섯살이라면서 몸동이는 너댓살밖에만큼도 발육이 안되고 그렇게 가냘픈 몸 위에 가서 째짝 놀라게 큰 머리가 올라앉은게 할일없이 콩나물 형국입니다.<sup>39)</sup>

위풍당당한 尹直員과 不均衡된 未熟兒의 不調和가 諧謔美를 形成한다. 여기에 에세의 尹直員 영감이 15세된 春心을 농락하려하는 음흉성이라든지, 春心和 尹영감의 孫子 경손과 三角關係가 이뤄지는 것, 그리고 X×원 별장에서 女學生 오일을 하러 간 종수가 대면한 自稱女學生이 바로 父의 妾 玉花인 것은 뒤죽박죽된 家庭倫理의 混線을 보여 준다. 머느리 高氏를 포함한 다섯 寡婦의 葛藤이 加味되고, 尹直員 영감의 四大宿願事業(族譜 鍍金, 벼슬 얻기, 兩班婚姻, 양반 내놓기) 중 양반 내놓기의 事業으로 손주로 하여금 경찰서장과 군수養成을 집요하게 推進하나 종수와 종학은 父 창식과 마찬가지로 祖父를 기만하고 財産을 탕진하며 作妾에 餘念이 없는 등 同床異夢의 倒着된 悲劇이 戲畫化되었다. 利己, 虛慾, 詐欺, 不信, 虛勢에 가득찬 畸型的 尹氏 一家의 不均衡 不調和에서 諧謔은 絶頂을 이룬다. 그러나 <太平天下>의 喜劇美는 위풍당당한 外貌와는 正反對로 尹直員영감의 人力車삐딱기, 放送局에 名唱 請願, 공짜 電車타기, 下等票로 上等席 鑑賞法의 奇拔한 着想과 尿의 保眼法 및 補身, 春心에 대한 짝사랑, 식량절약법(보리먹이기) 등에서 作品의 喜劇美는 더욱 提高되었다.

말을 잠깐 멈추더니, 그 다음엔 아주 썩 구수하게, 음성도 부드럽게  
「……야털아, 그러구 말이다. 거, 보리밥이 그런성 불리두 그걸 노상 먹느라면

37) 상남의 외모. (太平天下) 『新韓國文學全集』 4, p. 297.

38) 大福의 외모. 上揭書, p. 339.

39) 태식의 외모. 上揭書, p. 312.

글씨, 애기 못 낳던 여인네가 포태를 헌단다. 포태를 헌대여, 응?」<sup>40)</sup>

〈濁流〉의 構成은 치밀하고 人物과 事件이 중복없이 單線으로 흐르는데 비해 〈太平天下〉는 人物의 性格과 事件의 흐름이 중복된다. 상남, 대북, 태수의 低能兒의 類型과 子婦, 孫婦, 딸의 閉鎖적이고 我執의 類型, 子(창식), 孫(중수, 중하)의 悖倫 放蕩 僞善의 類型이 각기 중복된 類型群을 형성하였고 構成에도 유사한 事件이 자주 있어 反復을 통한 諧謔의 美를 強化시켰다.

蔡萬植作品의 諷刺性은 諧謔의 人物에 바탕을 둔 〈巡公있는 日曜日〉의 文五先生, 〈少年은 자란다〉의 吳先生, 〈濁流〉의 丁主事, 〈太平天下〉의 尹直員 영감에서 찾을 수도 있고, 事件에 바탕을 둔 〈太平天下〉 〈貧—第一章第一課〉 〈摸索〉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社會現實을 諷刺한 경우가 더욱 두드러진다. 〈레디메이드人生〉 〈明日〉 〈黃金怨〉 〈痴叔〉이 이 系列에 속하는데 특히 解放 이후 混亂된 社會相이 〈논 이야기〉 〈도야지〉 〈少年은 자란다〉에서 露骨化되었다. 이에서 進一步하여 〈玉娘祠〉에서는 東學亂과 日帝時의 우리의 歷史를 諷刺하고 있다.

蔡萬植이 社會相을 諷刺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世態小說家라고 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朴泰遠 등의 경우와는 달리 人間, 現實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作品은 중요한 意味性을 지닌다. 眞實을 渴望하는 그의 情熱은 正攻法이 아닌 迂廻의 手法인 諷刺로 人生과 社會의 問題點을 濃度있게 고발했다.

## 6. 作家의 思想的 背景

〈天平天下〉 등을 除外한 대부분의 作品에서 蔡萬植은 貧窮한 現實을 다루었고, 主人公은 宿命的 貧窮에서 挫折感을 가진다.

〈濁流〉에서 初鳳이 悲劇的 運命을 擇한 原因은 丁主事의 無能으로 인한 貧窮 때문이며 〈레디메이드人生〉 〈痴叔〉 〈明日〉 〈少年은 자란다〉에서도 貧窮에 몸부림치는 人生苦가 悽絕하다.

蔡萬植은 아리한 貧窮이 日帝의 誤導된 政策에서 惹起된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 知識人의 量產과 이로 인한 失業者 增加는 反日思想으로 連結된다.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것인데, 저렇게 취직을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야, 도회지에서 월급생활을 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무얼 합니까?」

40) 上揭書, p.314.



P는 말 중단을 잘라 붙씩 반문하였다. 그는 기왕 취직운동은 끝났진 것이니 속 시원하게 시비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다.

「허 저지 다 모르는 소리야…… 조선은 농업국ियो, 농민이 전인구의 팔할이나 되니까 조선 문제는 즉 농촌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지금 농촌에서 할 일이 오죽이나 많다구?」

「저는 그 말씀을 못 알아 들겠는데요, 저희같은 사람이 농촌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잖습나다」

「그럴 리가 있나! 자령 응 저……」

K사장은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다.<sup>41)</sup>

生活苦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農村에 돌아가 일거리를 단들라는 권유는 전혀 現實性이 없는 理論일 뿐이다. 春園이나 沈熏이 力說한 皮相의 觀念에 대한 강력한 反撥이다. 知識은 있되 貧窮에 몸부림치는 人間에게 文盲退治運動은 桌上空論에 지나지 않는다.

‘인텔리’……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 장을 또는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없는 인텔리…… 해마다 천여 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뱀을 본 것은 이들 인텔리다.

‘부르조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나 느니 그들은 결국 꼬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우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인텔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日帝時 9字 削除令)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달아 나오는 것이 99%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텔리요, 무력한 문화 예티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없는 개들이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다.<sup>42)</sup>

진정한 文明社會建設을 목표로 하여 社會發展을 위한 教育이 아니라 日本化 誘導의 虛飾을 고발한다. 作者는 〈흥! 체면! 공부! 죽어도 인텔리는 만들지 않는다.〉는 反撥心에서 9살된 아들 창선을 印刷職工으로 만든다.

이튿날 아침 일찍 창선이를 데리고 ××인쇄소에 가서 A에게 맡기고 안 내키는 발길로 돌려켜나오는 P는 혼자 중얼거렸다.

〈레디메이드〉 인생이 티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sup>43)</sup>

供給과잉된 高級 畧產 量產의 不合理한 日帝政策에 대한 告發이 逆說의으

41) 〈레디메이드人生〉, 上揭書, pp. 400~401.

42) 上揭書, p. 404.

43) 上揭書, p. 417.

로 強調되었다. 이러한 그의 思想은 <明日>에서 對立된 夫婦의 主張 속에 선명히 부각되어 있다. 아내는 知識에 대한 盲信의 渴望에서 ‘자식은 몸을 팔아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主張을 하게 되나

「팬헌 개기를 부리지 말어요. 있는 땅까지 팔아서 머리속에다 학문만 처넣었으니 그게 무어야. 써어먹을 수도 써어먹을 데도 없는 놈의 세상에서 공부를 했으니, 그게 무어란 말이야? 좀먹은 책장허구 무엇이 달려?」<sup>44)</sup>

라고 自嘲 섞인 不滿을 토한다. 그래서 범수는 <레디메이드 人生>에서처럼 큰 아들 중석을 최씨의 서어비스 공장 직공으로 보낸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영주는 종태만이라도 근처의 사립학교에나마 보낸다고 데리고 나갔다. 중석이까지 데리고 간다고 밤늦게까지 우기고 다투었으나 범수는 듣지 아니하고 정 그러랴거든 작은 아이 종태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두 사람의 소산을 두 사람이서 반분한 세움이다. 종태를 데리고 나가는 아내의 뒤태를 바라보던 범수는 혼자 투덜거린다.

「두구 보자. 네가 잘 하는 것인지…… 내가 잘 하는 것인지, 흥!」

뒤미처 범수는 중석이를 데리고 서어비스 공장으로 최씨를 찾아갔다.<sup>45)</sup>

供給과잉에서 오는 知識無用論과 貧窮이 蔡萬植作品的 基本的 바탕임에도 불구하고 蔡萬植은 社會主義에 대해 否定的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注目을 끌게 된다. 浮世文學의 渦中에서 한때 同伴者의 立場을 취하기도 했으나 社會主義에 대해서는 철저히 拒否했다. <痴叔>에서 反日的이었던 그가 차라리 日帝下에서 심부름을 하며 日本人과 結婚하고 日本人化하려는 主人公은 容納할 수 있을지언정, 社會主義를 狂信하는 아저씨는 容納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머 보나 안 보나 불안하지요. 대학교까지 가설랑 경제를 배우고도 돈모을 생각을 않고서 사회주의만 하고 다닌 양반이라 경제가 그르고 사회주의가 옳다고 우겨댈을 제니까요. (中略)

「아저씨가 여기다가 경제 무어라구 쓰구, 또, 사회 무어라고 썼는데, 그러면 그게 경제를 하란 뜻이요, 사회주의를 하란 뜻이요?」(中略)

「아저씨! 경제라 것은 돈 모아서 부자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사회주의라 것은 모아둔 부잣사람의 돈을 뺏아 쓰는 거 아니요?」(中略)

44) <明日> 上揭書, p. 467.

45) 上揭書, p. 491.

「아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소.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오년이나 했으니 그저 무어라 말ियो?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구두 왜 돈을 못 모으냐 했더니 인제 보니깐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군요.」(中略)

「그리면 아저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돈 모아 부자되는 경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모아둔 부잣사람네 돈 뺏아 쓰는 사회주의 공부를 했으니 말이지요.」(中略)

「거 보시우! 사회주의란 것은 그렇게 날부란당이어요. 아저씨도 그렇다구 하면서 아니시래요?」<sup>46)</sup>

사람 속차릴 여망 없어요. 그저 어디루 대나 손뼉만콩도 쓸모는 없고 남한테 사 폐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칠 사람이니 머 하루바삿 죽어야 하고 또 죽어 마땅해요.<sup>47)</sup>

無識한 <나>의 判斷으로도 철면피에 날붙한당밖에 안되는 社會主義者에 대한 증오는 철저히하다. 蔡萬植의 作品 중 <太平天下>에서 경찰서장 후보인 종수가 社會主義를 하다 날붙한당으로 질책을 당한 것, <레디메이드 人生> 기타의 諸作品을 통해 社會主義에 대한 不信은 철저히하다.

<玉娘祠>에서도 支配層에 대한 批判은 준엄하지만 無產階級的 社會主義的 傾向은 秋毫도 용납하지 않는다. 蔡萬植이 不信한 것은 兩班 또는 有產階級이 아니라 僞善의인 兩班, 파렴치한 탐관오리일 뿐이다.

蔡萬植의 反日思想은 經濟的 社會的 側面에서 把握된다. 米豆라는 日本에서 流入된 投機에 중독된 丁主事가 필경 失敗로 끝나듯 대부분의 米豆꾼들의 財産이 蕩盡되며, 手形장사를 하여 財産을 增殖시키는 張亨甫의 사채놀이는 近代化가 물고온 羊頭狗肉의 毒素라 하겠다.

교활하고 知能的 日本人이 無智하고 빈곤한 이 민족의 땅을 잠식해가는 過程도 그는 寫實的으로 고발하고 있다.

길천은 백남술이가

「이 사람은 논이 몇마지기 있소」

하고 조사보고를 하면, 서슴치 아니하고 왜채를 주곤 한다. 이 자리도 항용 체계나 장변보다 험하였다.

빚을 주는 데는 무른 것 같아도 받는 데는 무서웠다.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채무자를 제집으로 데려다 감금을 하고, 사형(私刑)으로써 빚 채근을 하였다.

부형이나 처자가 돈을 가지고 와서 빚을 갚는 날까지 감금과 사형을 늦추지 아니

46) <痴叔>, 上揭書, pp. 424~425.

47) 上揭書, p. 428.

하였다.

는 문서를 가지고 오는 자리는 우대하였다. 이자를 탕감하고 본전만 쳐서 논으로 받는 것이었다. 논이 있는 사람은 돈을 두어 두고도, 질기어 논으로 갚고 하였다.<sup>48)</sup>

知能的 殖民地化의 魔手에 걸린 無智한 善民들은 이 蔑에 不知不識 중에 걸려든다. 蔡萬植의 知性은 이러한 日帝를 증오하며, 日人에 대한 不信으로 發展된다.

웃이나 아니나, 세상 빌어먹게 생긴 것을 웃이라고 걸치고는 질력펠릭 아랫도리를 드러내놓고 다니고, 시애비놈이 머느리넌 앞에서 전검으로 ××만 가라고는 벌거벗고 나서고, 머느리넌이 시애비 앞에서 웃통 훌쩍 벗고 자빠졌고,

사촌끼리 혼인을 하고, 애비가 제 딸 자식을 데리고 살고.

부자간에 맞답배질 하고, 구렁이 잡아 구워먹고, 고양이 잡아 전골 지저 먹고 쌍놈 하여도 친하 불쌍놈이 없었다.<sup>49)</sup>

이처럼 蔡萬植은 近代化의 先導者 日人에 대한 實相을 능멸과 조소로 폭로한다.

真相을 正視하는 知性을 갖춘 蔡萬植이었지만 現實에 直接 뛰어드는 積極性을 天性的으로 지니지 못했기에 諷刺를 통해 暗示의으로 告發한다. 蔡萬植은 〈少年은 자란다〉의 吳先生을 통해 自身の 實像을 告白한다.

그것이 나라 망한 백성으로 나같은 용렬한 인간의 양면생활이 아니요? 용기가 없어 정면으로 대고 반항은 못하고 그러면서 오기는 있어 아주 굴복하기는 싫구. 하나간 할 수 없이 길으로는 복종을 하면서 속으로만 눈을 즐기는 것이 아니요? 보는 데서만 네네 굽신거리구, 뒷방에 앉아서 주먹질을 하는……제엔장마질!」<sup>50)</sup>

蔡萬植作品 속의 貧窮의 主因은 口頭禪의 知識人의 量產과 登場人物들의 良識, 自尊心에서 더욱 深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明日〉의 범수는 인민전선 내각의 그 뒷소식에 대한 맹렬한 궁금증을 총독부 도서관에 가기 싫어 自制한다든지, 금비너를 훔치고 싶은 本能的 欲求를 良心으로 統制하고, P의 주머니 속에 든 돈을 꺼내고 싶은 유혹을 自制하는 데 成功하며, 담배꽂초를 뒤 피고 싶은 吸煙慾을 끝내 統制하는 등 本能的 欲求와 良識, 自尊心의 葛藤에서 勝利함으로써 僞善과 貪慾으로 血眼이 되어 있는 日帝의 虛慾을 逆

48) 〈논 이야기〉, 〈上揭書〉, p. 450.

49) 〈少年은 자란다〉, 『月刊文學』 1972, 9月號, pp. 33~34.

50) 上揭書, p. 28.

說의으로 告發하고 있다.

解放은 蔡萬植에게 남다른 感激을 안겨주었지만 그러나 混亂과 僞善은 그로 하여금 또한번 失望을 안겨 주었다. 〈논 이야기〉 〈도야지〉 〈少年은 자란다〉에서 私利에 血眼이 된 政商輩의 跋扈는 또다른 喜劇을 이루고 있다.

「독립됐다구 했을 제, 내, 만세 안부르기 잘 했지」

라는 한덕문의 自嘲的 푸념이나, 〈少年은 자란다〉의 主人公 영호 남매가 만주에서 살다가 解放의 감격을 안고 歸國하면서 겪는 수난——母가 되놈들에게 輪姦을 당하고 死亡하며, 大田에서 父와 생이별하는 ‘비싼 해방값’——을 支拂해야 한다. 解放은 民族의 希望이 아니라 또다른 挫折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비싼 해방값’을 支拂했어도 解放은 貴重한 贖物이다. 영호 남매는 헤어진 아버지와의 再會를 기다리면서 여관집 심부름꾼과, 식모살이의 고된 시련을 克服하며 내일의 希望을 所重히 간직한다. 이들 남매의 시련과 期待는 바로 當面한 民族의 시련이요, 民族의 所望이다. 父 오윤서는 어딘가 生存해 있는 한 再會는 결코 夢想만이 아니며, 南北分斷의 民族의 悲劇은 언젠가 成就될 수 있는 것이다.

少年 영호는 어린 家長으로 百折不屈하는 意志와 希望을 지킨다. 여기서 蔡萬植은 막연한 期待로 고집하는 아내의 教育有用論의 〈明日〉과는 次元이 달리, 民族의 進路方向을 暗示하려 했다. 倒着된 現實에 대한 否定과 이를 諷刺的으로 告發하는 그의 姿勢가 肯定과 未來指向的으로 轉換되는 瞬間이 된다.

## 7. 白菱의 歷史意識

蔡萬植은 素材面에서 古典과 연관된 〈興甫氏〉 〈배비장〉 〈심봉사〉 〈許生傳〉 등의 作品이 있지만, 時代相 및 歷史意識이 강렬히 드러나 있는 作品으로 〈도야지〉 〈少年은 자란다〉 〈玉娘祠〉 등이 있다. 이들은 解放後인, 그의 末期에 創作된 作品이다. 도야지에서 해방후 僞善, 私利私慾, 권모술수, 利權, 협잡, 미숙한 民主主義의 亂舞相을 現實感 있게 諷刺하고 있으며, 〈少年은 자란다〉에서 日帝에 시달린 한 家庭의 悲劇을 寫實的으로 告發하였고, 〈玉娘祠〉에서는 東學亂以後의 歷史의 現實이 생생하게 照明되어 있다. 이들 現實 告發에 바탕을 둔 그의 作品들은 解放前의 暗示의 態度와는 달리 매우 積極性을 띤다. 따라서 現實參與과 批判이 지나치게 露出되어 있다.

歷史小說 〈玉娘祠〉는 아전의 자식인 張先用이 東學亂 壬午軍亂 閔妃弑害

事件 甲午更張의 소용들이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正義를 實現하려는 意態을 보여 준다. 여기에 日本의 侵略野慾, 中國 등 列強의 利害交叉, 政權확보에 급급한 朝廷大臣들의 暗闘가 民族의 悲劇을 自招하는 過程을 소상히 告發했다. 여기에 土豪, 탐관오리의 暴虐, 兩班層의 虛勢와 無能이 복합되어 滅亡으로 치닫는 現實 속에서 良識과 眞理가 여지없이 挫折당하는 悲劇的 現實을 보여주고 있다.

민비를, 그가 국사를 어지럽히는 사대당 민씨네 과의 총수라 하여 물리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일병으로 하여금 왕궁을 수비케 한다는 것은 결코 높은 범 청국이 없었다 물리간 그 자리에, 어린 삼정이 일본을 코셔 앉혔과 다투어 없는 일이었다.

과라서 나의 힘을 기를 겨를도 생각도 없이, 번번히 남의 힘을 빌어 반대파의 정권을 빼앗아 가지고, 남의 힘을 의지하여 그것을 지탱하려 드는데 있어서는 개화당도 결코 사대주의 무리이지는 민씨네 편보다 강할 것이 없었다.

일본과요, 문호개방을 도창하고, 신본령의 수입을 부르짖고 하는 거확당에서 비록 임시방편이라곤 하지만 배일과요 세국정치의 실행자요, 보수주의의 권력요한 대원군을 섭정의 자리에 맞아 들인다는 것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족한 것이 있었다.<sup>51)</sup>

蔡萬植은 自主獨立을 主張한다. 良心과 正義, 眞理와 自立을 민족적 시련을 克服하는 最上의 方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實踐하는 강한 意志다. 張善用은 황산굴을 중심으로 日人뿐 아니라 日人에 다루히는 朝鮮人, 순사, 헌병 보르완 등을 單身으로 擊殺하며 晝夜間까지 孤軍奮鬪한다. 올바른 歷史觀과 正義에 立脚한 良心, 그리고 毅然한 意志만이 民族生存의 必須要件으로 解釋된다.

## 結 言

蔡萬植은 1924 년 이후 26 시간 作品活動을 하면서 60여편의 短篇과 15편의 中長篇을 包含, 戯曲·시나리오 등 80여편의 作品을 남긴 多產作家였으며 韓國近代文學史上 중요한 시기에 활동하면서 韓國文學史上 기여한 功勞가 至大함에도 그에 대한 文學史的 評價가 輕視되어 왔다.

그러나 蔡萬植처럼 眞摯하게 文學에만 專念하고 知性的 次元에서 社會現

51) <三娘詞>, 성호사, 1961. 10, pp. 127~128.

實을 直視하고 人生과 社會現實을 分析하고 批判한 作家도 드물다. 그는 人生과 現實問題를 깊이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그의 독특한 諷刺的 技法으로 파헤치고 있다. 人物描寫, 心理描寫, 寫實的 表現, 人物·事件·社會現實에 대한 諷刺에 頭角을 나타내었고, 開化의 美名下에 蠶食해 온 日帝의 收奪에서 緣由된 貧窮의 늪에서 宿命的으로 감내해야 했던 民族의 悲劇을 고발하였다. 反日的, 反社會主義的 氣質을 지닌 蔡萬植은 解放前까진 暗示的 諷刺로 一貫되어 왔으나 解放 이후엔 混亂하고 偽善的 現實을 露骨的으로 諷刺化했다.

蔡萬植은 單純한 世態小說家나 無定見한 同伴者的 作家가 아니라 知性的이고 良識을 지닌 作家였으며, 人生과 社會의 諸問題를 深度있게 파헤친 作家였다. 不條理한 現實과 運命을 孤獨하게 消化해 가며 살아간 作家라 하겠다.